

【 해외금융 뉴스: 복미 】

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과 시사점

- 미국 신용평가회사 S&P는 미국의 부채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‘안정적’에서 ‘부정적’으로 하향 조정함.
 - S&P는 미국이 2013년까지 부채감축 수단을 포함한 포괄적인 예산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경우 ‘안정적’ 전망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을 낮출 수도 있다고 강조함.
 - 이에 대해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장기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백악관과 의회간의 합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신용등급 전망이 하락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함.
- 올해 1월 일본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었고 영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2009년 ‘부정적’으로 조정된 뒤 2010년 10월 ‘안정적’으로 회복되는 등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섰던 선진국들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 압력을 받고 있음.
 - 미국과 함께 S&P로부터 AAA 등급을 부여받고 있는 프랑스도 국가 채무비율(92.4%)이 재정위기 국가인 포르투갈 수준(92.9%)에 육박하고 있으며, 2009년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겪었던 영국은 재정건전화 방안을 통해 2010년 10월 안정적 전망을 회복함.
 - 미국의 2003~2008년 평균 GDP대비 적자 비중은 4.0%로 독일(2.1%), 영국(3.5%), 프랑스(3.2%) 등 AAA 등급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높았으며, 2009년에는 11.3%로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.
- 미 국채의 최대 보유국인 중국은 미 국채 투자자들에게 미국의 신용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미 정부가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.
 - 반면 일본 재무성은 미국이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미 국채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상품이라고 언급하면서 미 국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함.

(CNN 등, 4/18)